

삶의 아름다움은 재산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의 정성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거울처럼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 성전스님 -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우수 연제상’ 수상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가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2024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최승임 교수는 ‘중증 COVID-19에서 항체 의존성 증강(ADE) 및 항체 의존성 세포 식세포작용(ADCP): Fc 매개 효과기 기능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에서 최 교수는 COVID-19 환자의 혈액 검체를 이용해 항체 의존성 증강(ADE) 및 항체 의존성 세포 독성(ADCC), 항체 의존성 세포 포식작용(ADCP)을 측정하여 이러한 Fc 매개 면역 기능과 COVID-19 중증도 간의 관계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E와 ADCP 활동이 높은 경우 COVID-19의 중증 사례와 연관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과도한 Fc 매개 면역 반응이 질병의 중증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로 평가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아동학대 예방 기여로 일산동부경찰서 감사장 수상, 환자 안전 보호에 앞장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15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진은 보호자가 수시로 자리를 비우며 아이를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지난 10월 27일 이를 관할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으로 해당 환아는 즉각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 병원과 여러 기관의 협력 아래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환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적절한 시점에 신고해 준 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사장은 의료진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수여됐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며, 환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로봇 운행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19일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로봇 운행식을 개최하며, 병원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된 배송 로봇 3대는 병원 내에서약품, 검체, 환자 물품 등 물류 운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단순 반복 업무를 경감시켜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범선 병원장은 “로봇, 인공지능(AI), 데이터의 활용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트렌드로 선제적 검토와 추진이 중요하다”며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K-로봇 시장 확대와 산업·일상의 혁신을 목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로봇 전문 서비스 기업 (주)클로봇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배송 로봇을 주제로 실증사업 물류 분야에 지원,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됐다.



화재 사고 대비 ‘2024년 소방훈련’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7일 병원 서측 야외 주차장에서 ‘2024년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병원 내 화재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환자 및 직원 대피를 위해 마련되었다. 훈련은 일산 풍동 119소방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교직원들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을 직접 익히며 화재 진압 훈련에 참여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매년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병원 내 재난 대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호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 기부

진호스님이 내년 불교병원 개원 20주년을 앞두고, 병원 의료 장비 구입 기금으로 1천만 원을 지난 11월 11일 기부했다. 스님은 30여 년 전 동국대학교 학인스님 때부터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건립 불사에 동참하며 무주상보시를 실천해 왔다.

진호스님은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에 더해 신관 건립 기금으로 월 100만 원씩 1년간 1천2백만 원을 정기 기부하기로 약정하며 또 한 번 나눔을 실천했다.